

문학산코스1

취지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를 둘러보고, 비류백제의 중심지인 문학산 일대의 유적들과 설화들을 살펴본다.			
코스			
인천향교 ▶ 산신우물 ▶ 문학산(배바위-고마리길-문학산성-문학산 정상-문학산 역사관-문학산 제사유적) ▶ 삼호현고개 ▶ 중바위 ▶ 갑옷바위 ▶ 문학터널 ▶ 삼호어린이공원			
필요물품	마실 물, 편한 복장과 등산화(혹은 운동화)		
거리	5.8km	소요시간	3시간
메모			

1. 인천향교



향교는 공자 이하 유현(儒賢)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와 학생들을 모아 강습하는 학교가 병설되었으며, 그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건물들이 강학공간(講學空間, 명륜당과 동재, 서재)과 배향공간(配享空間, 대성전과 동무, 서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향교의 건물 배치는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이거나 옆으로 나란히 배치. 인천향교는 구릉지에 축대를 쌓아 건물을 배치했기에 전학후묘 방식.



향교 앞 비석군 : 인천부사 선정비 18기가 있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송덕비(頌德碑), 청덕비(淸德碑), 공덕비(功德碑), 애민비(愛民碑) 등으로 불렸다. 이중 을사오적 박제순 비는 뽑아서 눕혀놓았다.



홍전문(紅箭門) : 능·원·묘·궁전·관아 따위의 정면 앞에 세운 붉은 칠을 한 문으로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붉은 문은 귀신과 액운을 물리친다는 풍속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마비(下馬碑) : 조선시대 종묘와 문묘, 궐문 앞에 세워놓은 석비로 ‘大小人員皆下馬(대소인원개하마 :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외삼문(外三門) : 신삼문(神三門). 중앙 솟을대문은 신문이고 양쪽 문은 인문(人門). 신문은 춘추 제향이나 삭망(朔望) 때 열어서 헌관(獻官)만 출입하게 하고, 일반 제관은 동입서출(東入西出) 즉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온다.



명륜당(明倫堂) : 강학하는 공간으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건물
동재(東齋)에는 양반의 자제가, 서재(西齋)에는 양민의 자제가 기숙했다.



대성전(大成殿) : 문묘의 정전으로 공자와 4성(四聖, 안자·증자·자사·맹자),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대성전 앞에 있는 건물로 공문72현과 한당22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셨었다.

2. 산신우물



옛날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산신우물가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아이를 갖는다는 말을 듣고 백일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향했다. 지나가던 아낙이 말을 걸었지만 부정을 탈까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말을 걸었던 아낙이 아기를 뱃고 부부에게는 끝내 태기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일기도의 치성이 그 아낙에게 옮겨갔다고 말했다.

3-1. 문학산_배바위



‘태초에 조물주가 장차 바닷물이 문학산까지 치밀어오를 것을 예상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960년대 사진으로만 남아있던 배바위를 2016년 다시 찾아냈다.

3-2. 문학산_고마리길



1년생초인 이 고마리는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준다고 하여 고맙다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고마리꽃 자생군락지가 자연학습장을 중심으로 길 위아래에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9월 중순 이후 꽃이 핀다.

3-3. 문학산_문학산성



인천시 기념물 제1호로 산의 정상에 테로 둘러싼 듯한 테뫼식 산성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인천에 성이 있어 이곳을 미추홀고성 또는 남산고성이라고 하는데 둘레가 160보이고 성안에 봉수대와 작은 샘이 있다’라고 기록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남산고성의 둘레가 403척이다’라고 기록했다. 성벽을 일부 복원한 결과 문학산성 총길이는 577m이고 동쪽과 남동쪽에 남아있는 성벽 길이는 330m이나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220m다. 성벽 높이는 1.5~4m로 추정된다.

3-4. 문학산 정상



「여지도서」「인천도호부 고적조」에는 ‘문학산 정상은 미추왕(비류)의 옛 도읍지’라고 했으며,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속전하는 바로 문학산 정상에는 비류성터가 있고 성문 비판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성내에는 비류정이 있어 맛이 시원하고 산뜻하다’고 기술. 봉수대와 안관당이 있었다고 한다. 해발 233m이었는데 군부대 조성으로 16m나 깎여 현재 217m이다.

3-5. 문학산 역사관



문학산의 가치와 문학산성의 현황에 대한 축소 디오라마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제1전시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산의 시대별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는 제2전시실, 인천 향토사 선구자들이 남긴 옛 사진들과 근·현대 문학산의 변모를 살필 수 있는 지도 등이 전시된 열린 역사길로 구성되어 있다.

3-6. 문학산_제사유적



기와지붕을 가진 사각형 제단시설 터가 발견됐고, 청동기 시대 간돌 화살촉(마제 석촉) 3점과 통일신라 기와 편 50점, 토기 20점, 고려 시대 명문기와 청자 각 2 점 등 유물 총 100여 점이 함께 출토됐다.

4. 삼호현고개



백제의 사신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은 더이상 따라오지 않고 이별했다. 사신들도 이 삼호현에 이르러 저 멀리 보이는 별리현에 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별을 안타까워했다. 사신 일행은 “잘 있거라, 그동안 잘 있거라. 다녀올게, 잘 있거라.” 하며 이별 소리를 세 번 크게 외치면서 이 고개를 넘었다. 사모지고개, 삼해주현이라한다.

5. 중바위



옛날 청학동에 사는 스님이 시주를 하러 학익동으로 가기 위해 매일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어느 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여쁜 여인이 술잔을 받쳐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스님에게 술 석 잔을 공손히 바치고는 사라졌다. 그 일은 매일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매우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이기지 못한 스님은 여인에게 술 석 잔을 받아 마시고도 성에 차지 않자 한 잔만 더 줄 수 없냐고 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바위 뒤로 사라졌고 다시는 술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여인이 사라진 바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로 바위를 받으며 “술 한 잔만 더 주요.”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머리로 받은 자리에 구멍이 생겼고 무릎 자국과 손자국이 뚜렷이 새겨졌다. 욕심을 경계하라는 설화다. 중바위 뒤쪽에서 보면 중 바위가 남근(男根) 모양이다. 아들을 얻고자 기원하는 바위인 ‘기자암(祈子巖)’을 중심으로 한 제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갑옷바위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 아랫부분에 돌함을 파고 자기 갑옷과 투구를 감춘 다음 그 위에 뚜껑바위를 덮어놓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바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런데 한 번은 문학산 꼭대기에 있는 안관당 지기가 이 바위를 깨뜨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확인할 작정으로 뚜껑바위 아래쪽을 망치로 쳐 깨뜨렸다. 그러자 정말 청천벽력이 치고 천지가 진동해 당지기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7. 삼호어린이공원



문학동에 위치한 빌라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원. 도심 주택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2002년 조성되었다.

#. 인천도호부 동헌과 객사





문학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인천도호부 동헌과 객사. 1982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개방하지 않아 방문 불가)